

建築有感

(木口會 建築評論集을 읽고)

韓 鏞 燮

1. 木口會 (Architect's Group)

지난해 (1974년 12월 28일)에 한국일보사 스카이라운지에서 木口會 建築評論集出版記念 自祝會에 參席하고, 집에 돌아와서 머리속에서 뭔가 맴돌고 있는 것을 몇가지 Memo를 해 놓고는 밤잠을 설친일이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어떤 心理的인 동요나 흥분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다만 뭔가를 느껴야 하겠고, 뭔가를 찾아내야만 하겠다는 번뇌에서 하루밤을 지낸 것 같다.

木口會는 建築同人들의 모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날 自祝會에 나와있는 木口會 會員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의욕적이고 希望的이며, 進就的인 인상을 풍기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정말 多幸한 일이다. 아니 정말 의욕적이고, 希望的이요, 進就的인 것이다.

내가 알고있는 木口會 會員들은 아직 社會의 인습에 젖었거나 값싼 倫理觀에 얽매어 있는 (때물지 않은) 流行人的인 建築人들은 아니라고 본다.

이 『木口會 建築評論集』이 권위 있는 「建築家」들이 出版한 評論集이 아니라 쓴 치더라도 친척되어있는 (Critic이 없는) 建築社會에 움이 싹 틀 수 있는 봄 씨앗을 뿌린 것만은 틀림이 없다.

특히 公日坤氏의 「傳統散考」라던지 또 金涇氏의 「建築批評의 普遍的 當爲」 또는 元正洙氏의 「金壽根論-1968」과 같은 評論은 「建築家」로서의 自己哲學과 建築理論을 充分히 說破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 生覺된다. 「木口會 建築評論集」을 읽고 遺憾스럽게 生覺된 것은 실린 글들이 대개 해가 훨씬 지난 글로서 時差感에 얼핏 피부에 부딪치지 않은 점과 또 하나는 좀더 솔직하게 (뭔가 조금 얇은 壁이 가리워져 있는) 吐露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分명한 것은 木口會의 同人들이 그 누가 생각지 못했던 (생각을 했어도 움길 自信이 없는) 일을 대담하게 自信있게 Critic이 없는 建築社會에 먼저 Period를 적어 놓았다는데 이 以上の 큰 뜻은 없을 것이고 이 代價를 높이 사주는 바이다.

2. 批評 (Critic) 不在

우리는 自意던 他意던 간에 이제는 어쩔수 없이 建築이라는 한 Category 속에서 배워야하고, 生活를 해야하고 工夫를 해야 할 줄로 한다.

우리나라도 現代建築 International Architecture style)을 도입한지도 四半世紀를 지난것 같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建築言語를 가져야 하겠고, 우리의 것을 定立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生覺된다.

우리 建築人들도 아니 「建築家」들도 이제는 우리 建築에 대해서 뭔가 서로 얘기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얘기를 하지 않고는 배겨날 수 없지 않은가?

아름다운 文章이나 形而上學的인 論理에 依한 自己哲學은 고사하고라도 여지껏 作品을 통해서 느끼고 또 自己의 施行錯誤 乃至는 自己傲慢을 批判받고 批評을 해야할 때가 아닌가 生覺된다.

우리의 建築社會에는 Critic이 없는 社會로서 安易하게 지나왔다.

勿論 全然 批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批評을 받는 作家와 批評을 하는 (間接的이거나 個人과 個人) 建築家와의 對話는 있었다.

이것이 對話로서가 아니면, 建築雜誌에서 소극적인 記事거리로 끝나고 말았다.

우리는 너무나 對話의 門이 막혀 있는 것 같다.

既成 建築家들이 이런 對話의 門을

꼭 닫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新進 建築家들이 既成 建築家들에게 어떠한 어떤 反抗的이고 회의적인 思想 때문에 對話의 廣場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엄숙히 머리속여 生覺해 보자.

그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우리 建築社會에 잠재해있는 固陋한 思想과 現實도피가 아니겠는가?

여러가지 좋은 예가 있다.

1960年代의 경북궁내의 國立綜合博物館이나 扶餘博物館 등의 作品이 그 設計過程에서 施工過程으로 움길 때 여러 建築人들은 남의 집안 일처럼 觀望만 하고 있다가 散發的인 是非가 일어나니까 最終的인 棄처방으로 改作的인 수습으로 끝났다는 엄연한 事實은 너무나 아이러니라고 생각 안할 수 없다.

우리는 흔히 1950年代를 現代建築 National Architecture style의 導入期라고 하고, 1960年代를 혼란기 또는 模倣期라고도 한다. 그러면 1970年代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우리 建築의 (Locality) 定立期가 아니겠는가 生覺된다.

建築家 金壽根氏가 우리나라에 Exposed Concrete의 質感을 導入했다던가, 또는 建築家 金重業氏가 Le Corbuier의 作品을 導入했다던가 하는 얘기를 서로 나눌수 있고 討論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오지 않았는가 生覺된다.

적어도 作品을 하고 建築을 工夫하고 Color를 알면, 이제는 建築人들의 批評의 廣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3. 現實參與

우리 「建築家」들은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다고 生覺된다.

文学·音楽·美術·哲学等々の 学門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建築은 時間과 空間의 綜合的인 藝術이고, 그時代 그社會의 文化尺度인 까닭이다.

1960年代의 建築家 Rudolf Steiner 와 같은 사람은 哲學者요, Goethe 學者이며, 또 神秘主義(Aanthroposophy 思想)者 이면서 偉大한 建築家인 것이다. (제 1 제 2 Goetheanum 의 作家)

Dennis Shahp 는 이 사람을 가르켜 現代의 万能人間(Uemo Univer-sale)이라고 지칭했다.

우리는 Rudolf Steiner 와 같은 万能人間的인 「建築家」가 못될지언정 우리의 建築思想은 가져야 하겠다.

Rudolf Steiner 는 그時代 그社會에 직접 뛰어들어 自己 주변에 있는 기술자 工芸家·藝術家들을 모여놓고, 自己 Goetheanum (괴-테의 記念館)을 研究 發展 시키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고, 그時代 그社會의 文化에 커다란 影響을 준 人物인 것이다.

우리나라 建築界에는 3개 團體가 있다. 그 하나는 建築學會 또 建築家協會가 있고, 또 하나는 建築士協會가 있다.

勿論 3개 團體는 各各 다른 official 한 機能을 갖고 있다. (勿論 color 도 다르다). 그러나 中國에 있어서는 建築이라는 Category 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3개 團體가 創立되고 運營되어 온지 벌써 10年乃至 20年의 年輪을 쌓고 있다.

내가 알고 있기에 建築學會 에서는 週期的인 學術講演會 같은 것을 갖는 것도 보지 못했고, 고작해야 會誌發刊에 끌리는 現象이고, 建築家協會에서도 이와마찬가지지만 年例行事로서 現代建築展이란 것으로 맴질할 정도이고, 建築士協會도 이렇다할 세미나 혹은 建築作品 展示會를 갖는 것을 별로 본 기억이 없다.

3個 團體가 고작 會誌發刊으로 體面을 유지 해 오고 있는 實情이다. 特히 遺憾스러운 것은 建築家協會에서 지난해 10月 4日부터 10月 9日 까지 미도파 화랑에서 “74年 現代建築作家展”을 했는데, 이에 對한 建築人들의 반응이 없었고, 作品評會 같은 것도 建築家協會에서 마련하지 못한 것은 年中行事처럼 맴질程度로 끝이는 일 같은 인상을 남겼을 뿐이다.

最近에는 各大學에서도 建築科 主催로서 作品展示會나, 學術세미나 같은 것도 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 요 얼마 전에 中央大學校 藝術大學에서 學生作品 展示會를 갖은 것만 알지 이렇다할 行事를 갖은 일이 없다.

大學의 建築教育 過程이 그 얼마나 重要하고, 至大한 影響을 미친다는 것은 더 이상 거론치 않아도 잘 알출 민는다.

앞으로는 建築界의 3개 團體에서 나 또는 大學의 建築科에서 年例

行事的인 답습을 피하고, 真正한 建築社會에 活力素를 불어넣을 수 있는 行事를 마련해주길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다.

建築은 建築家의 것만은 아닌 것이다.

建築은 그 時代 그 社會의 文化를 大變해주는 綜合的인 藝術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그 社會·太象의 것임에는 自他가 共認 하는 바이다.

또 우리 建築人은 그 時代, 그 社會의 民衆에게 참다운 建築에 對해서 教導해 줄 책임과 의무를 同時에 갖는 것이다.

앞으로 「木口會」와 같은 建築同人 Group 이 많이 나와서 切磋되어 있는 우리 建築社會에 어떤 movement (建築정화運動)가 되어서, 선배 建築家나 新進 建築家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루 속히 Critic 의 廣場을 마련 해야 하겠다.

우리 大衆社會에 mass-Communication을 통해서 우리 建築言語를 말할 수 있고, 우리 建築의 定立을 教導해서 그릇된 (이미 저질러진 建築 잘못된 기준) 建築을 알수 있겠끔 일깨워 줘야 하겠고 御用建築이란 오명을 하루속히 벗어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現實參與를 하므로 해서 우리는 社會的인 위치를 바로 잡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1975年 1月

筆者 富國建築設計事務所 代表